'佛緣'은 '맹구우목'과 같은 것



新 불교사자성어

⑤ 맹구우목(盲龜遇木)

'눈이 먼 거북이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통나무를 만나다' 라는 뜻이다. 한역 〈잡아함경〉 15권에 있는 우화로서 '맹구우목공(盲龜遇木孔,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다)' '맹구치부목(盲龜值浮木,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떠 있는 나무를 만나다)' 이라고도 한다.

해저(海底) 깊은 곳에 살고 있는 거북이는 100년 만에 한 번씩 해수면 위로 올라와서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그런데 다행히 구멍이 뚫린 통나무를 만나야만 그 속에 머리를 밀어 넣고서 망망대해를 구경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데, 통나무를 만나지 못 할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이 비유는 인간으로서 태어나기가 어렵고(人身難得), 또 설사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부처님 법(法, 가르침)을 만나기가 마치 '눈이 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통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어렵다' 는 뜻이다. 물론 이 비유에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정진하라는 의미이다. 이것을 한자로는 '인생난득(人身難得) 불법난봉(佛法難逢)' 이라고 하는데, 〈열반경〉 〈화엄경〉 등 많은 경전에 나오며 신라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에도 나오고 있어서 비교적 우리에겐 익숙한 사자성어이다.

그런데 100년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북이가 구멍 뚫린 통나무를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눈이 멀쩡한 거북이도 아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먼 거북이(盲龜)의 경우라면 그 가능성은 0%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만큼 불교를 만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비유한 상징적인 말이다.

불교의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팔정도가 있다. '팔정도(八正道, 八聖道)' 란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여덟 가지 바른 길로서, 정견(正見),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념(正念), 정정(正定), 정사유(正思惟), 정정진(正精進)을 말한다.

나는 그 가운데 네 가지 곧 정견, 정어, 정업, 정업을 100%가 아닌 50%만 실천해도 그는 사회적 롤모델, 타인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풀이하면 올바른 사고와 견해를 지니는 것(正見), 가짜뉴스, 거짓말, 아부, 폭언, 비방, 불량 댓글 등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것(正語), 사기행각이나 도적질, 폭력, 살인 등을 하지 않고 바른 행실을 하는 것(正業), 의식주 등 생활에서 낭비, 사치하지 않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사용, 소유하며, 항상 깨끗하게 생활하는 것(正命). 이렇게 네 가지만 실천해도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서 명망은 있으나 인격 미달자가 적지 않다.

팔정도는 언행이나 행동규범의 전범(典範)이다. 따라서 종교적 색채를 떠나서 그 누구라도 실천 철학으로 삼아야 할 규범이라고 본다. 특히 불교도들에게는 더욱 '인생의 지침' 이 되는 생활철학이다.

불교 경전에는 많은 비유와 우화, 예화가 나온다. 그 대표적인 경전이 〈백유경〉, 〈현우경〉, 〈법화경〉 비유품 등인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나 또는 외도들과 논쟁할 때에 직설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거나 논쟁하기보다는 비유나 우화, 예화 등을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설적인 논법보다는 간접적, 비유적인 논법이 타인을 이해, 설득시키고 가르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교육적이기 때문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다. 두 번은 불가능하다. 나는 이것을 늘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만일 조물주가 인생을 한 번만 더 살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준다면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터인데 말이다. 무엇 때문에 젊은 날 공부하지 않고 세월을 파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어학과 통기타를 배우지 않은 것이다. 어울리지 않겠지만 통기타를 가지고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 '베사메무초' 를 분위기 있게 연주해보고 싶다. 아직도 늦은 건 아니다. 길은 길고, 언제든 아름다울 수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덕산의 말 두 개의 말뚝이 되고

〈言〉



격절록 강설

⑤ 덕산시중화 평창 3

[評唱 3]

只如 法眼拈道 "大小德山 話 作兩橛" 可謂據款結案. 圓明拈道 "大小德山 龍頭蛇尾" 也是看孔著楔. 如今作麼生會這公案. 若做兩橛會 且得沒交涉 便作龍頭蛇尾會 且得沒交涉. 既不恁麼會 畢竟作麼生. 且道 二老宿 為什麼却如此拈. 諸人試著眼看.

그건 그렇고, 법안(法眼)이 염(拈)해서 말하기를 "별 것 아닌 덕산의 말이 두 개의 말뚝이 되었다"고 했으니, 가위 법령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할 만하다. 또한 원명(圓明)이 염해서 말하기를 "별 것 아닌 덕산이 용두사미가 되었구나!"라고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구멍을 보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공안을 알고 있는가? 만약 두 개의 말뚝으로 알아도 전혀 관계가 없고, 용두사미로 알아도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알지 않는다면, 필경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자, 말해보라! 두 노숙(老宿)이 어째서 이와 같이 염을 했는가? 모두들 시험삼아 착안(著眼)해보라!

古人道 "獅子咬人 狂狗逐塊" 如今作麼生見得德山去. 所以 拈古十箇 拈做十般 要須出他古人意 方喚作拈古. 只如 傅大士道 "夜夜抱佛眠 朝朝還共起 要知佛去處 只這語聲是" 看他玄沙拈道 "大小傅大士 只認箇昭昭靈靈" 又靈雲見桃花便悟云 "自從一見桃花後 直至如今更不疑" 玄沙云 "諦當甚諦當 敢保老兄未徹在" 且道 他意在什麼處.

고인(古人)이 말하기를 "사자는 사람을 물지만, 미친 개는 흙덩어리를 좇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덕산을 보았는가? 그래서 (이에 대해) 염고(拈古) 열 개를 열 가지로 염하더라도, 모름지기 저 고인의 뜻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니, 그래야 염고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 대사(傅大士)가 말하기를 "밤마다 부처를 끌어안고 자며, 아침마다 함께 일어난다. 부처가 간 곳을 알고자 하는가? 다만 이 말소리가 그것이다"고 했는데, 저 현사(玄沙)가 염해서 말하기를 "별 것 아닌 부 대사가 다만 소소영령(昭昭靈靈)한 것을 알았을 뿐이다"고 한 것을 보라! 또 영운(靈雲)이 복숭아꽃을 보고서 바로 깨닫고는 말하기를 "복숭아꽃을 한 번 본 이래로 지금까지 다시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사(玄沙)가 말하기를 "확실하고 아주 확실하다. (하지만) 감히 보증컨대, 노형이 아직 철저하지 못했다"고 했다.

자, 말해보라! 그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자는 사람을 물지만, 미친 개는 흙덩어리를 좇는다(獅子咬人 狂狗逐塊)는 말은 전등록 제 6권, '월주(越州) 대주(大珠) 혜해(慧海) 선사' 편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물었다. "무릇 경 · 율 · 논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읽고 외우며 가르침에 의지해 받들어 행하는 것인데, 어째서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마치 미친 개는 흙덩이를 좇지만, 사자는 사람을 무는 것과 같다. 경 · 율 · 논은 자성의 용이고, 읽고 외우는 것은 성품의 법이다."

*부 대사(傅大士, 497~569)는 무주선혜(婺州善慧), 쌍림(雙林) 대사, 동양(東陽) 거사라고도 한다.

*현사사비(玄沙師備, 835~908): 설봉의존의 법을 이었다.

*영운지근(생몰 미상): 위산영우의 법사. 경덕전등록 11권, '복주 영운 지근 선사' 편에 오도송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30년을 검객을 찾았으니 낙엽지고 새싹이 돋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복숭아꽃을 한 번 본 이래로 지금까지 다시 의심하지 않았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⑤ 믿음 편 5

깨달음, 이성 아닌 믿음 · 수행으로

불교는 과학이 아니라 종교라는 점에서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간과한 채 불교를 과학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증명하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중세 기독교의 오류를 답습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믿음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부처님(佛)과 가르침(法), 승가(僧)이다. 이를 가리켜 삼보(三寶), 즉 세 가지 보배라 한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다. 삼보는 불교를 지탱하는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의식은 삼보에 귀의하는 것(三歸依)에서 시작된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귀의란 범어인 '나마스(namas)' 를 번역한 말이다. 흔히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무(南無)' 는 나마스를 음역한 말이다. 이는 목숨 걸고 돌아간다(歸命)는 뜻이다. 삼귀의란 삼보에 돌아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일종의 신앙고백이다. 이처럼 부처님과 가르침, 승가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을 별상삼보(別相三寶)라 한다.

반면에 삼보를 '하나인 마음' 으로 바라보는 일심삼보(一心三寶)도 있다. 불법승(佛法僧)이 마음 밖에 별도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일심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귀의는 하나인 마음에 돌아가 살겠다는 간절하면서도 굳건한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믿음은 화엄불교나 선불교에 이르러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된다. 〈화엄경〉에는 "마음과 부처,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고 하였다. 우리는 탐진치(貪瞋痴) 삼독에 취해 있어서 중생인 줄 알고 살지만, 실은 믿음의 대상인 부처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삼독에서 깨어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부처다운 삶을 사는 것이 곧 신앙인의 참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믿음을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信爲道元功德母)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나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불교의 목적인 깨달음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믿음과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선불교에서도 '마음이 곧 부처(心卽佛)' 임을 매우 중시한다. 이를 언급하지 않은 선사들이 거의 없을 정도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다름 아닌 부처임을 믿고 깨치는 것이 곧 견성(見性)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품을 밝게 비추는 견성은 선불교의 생명이다.

화엄이나 선에서 자신이 곧 부처임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부처를 대상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를 대상화하면 나와 부처가 둘이 되어, 나는 '여기' 에 있고 부처는 '거기' 에 있게 된다. 따라서 부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밖에 있는 '거기' 로 향할 수밖에 없다. 선불교에서는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돌이키라(返照)고 한다. 그럴 때 부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깨친다는 것이다. 선사들이 '절대로 밖에서 찾지 말라(切莫外求).' 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가 지나치게 기복(祈福) 중심으로 흐르게 되면, 자기성찰의 종교라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 기도도량으로 유명한 전국의 사찰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영험 때문이다. 소원을 빌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종교에 기복이 없을 수 없다.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의 위신력(威神力)에 의지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담을 수 있다. 연등이나 염주 등에 '소원성취(所願成就)' 란 말이 많이 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불교가 왜곡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기복신앙' '귀신장사' '아줌마 불교' , 한국불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용어들이다. 이를 극복하고 자기 성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불교는 어리석은 믿음(迷信)이 아니라 바른 믿음(正信)을 지향하는 종교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찰에서 신도에게 받는 시주금(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급여(개인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월급받고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입니다.
스님이 한 분 계시는 단위 사찰도 해당이 되며, 세무서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관련 신고 납부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사찰에서는 기한 내에 신고 · 납부하셔서 세법상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과세 관련 무료 동영상 강의

• 유튜브 검색창에 "박성욱 세무사" 검색하시면 사찰 종교인과세에 관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1강 기부금영수증 업무처리
2강 신고납부일정
3강 종교인소득
4강 가산세
5강 종교인소득 절세와 관리요령

※동영상 강의 자료가 필요한 종단 및 사찰에 무료 배포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 납부일정

• 7월 10일까지 : 2018년 상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9년 1월 10일까지 : 2018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9년 2월 : 종교인 연말정산 실시
• 2019년 2월말 : 지급명세서 제출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051.996.0308 | 010.9878.5716 박성욱 세무사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